

제7차 DAC 원조효과 작업반 회의 결과

제7차 DAC 원조효과 작업반 회의가 10.19~20 개최된 바, 주요결과는 아래와 같음.

I. 핵심요지

- 2005년 3월 파리 고위급회의에서 합의된 원조 효과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의 이행 및 홍보, 3개 공동벤처 사업(정부조달, 정부재정관리, 개발성과 관리) 등을 2006~8년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
 -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11월 말경 재론기로 하였으며, 예산 조달 측면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긴축적인 예산 운용의 필요성이 제기됨.
- Paris Declaration의 주요 취지인 “alignment”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남아공, 베트남, 캄보디아 등 20여개국 이상의 원조 수원국이 공여국과 같이 금

번 회의에 초청되었으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수원국과 공여국간 의견 대립이 표출됨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음.

- 향후 수원국-공여국간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동 작업반의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관건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

II. 관찰 및 평가

- 우리의 주요 원조 대상국인 베트남은 원조의 언타이드화(untied aid)를 정부조달 공동 벤처사업의 주 연구 분야로 포함시킬 것을 제기하였음.
- 베트남의 동 제안은 앞으로 원조의 언타이드화에 대한 수원국들의 요망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 타이드 원조가 공여국의 직접적 국

익에 봉사하는 바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국제적 추세에 반하여 타이드원조를 고집할 경우, 우리의 ODA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원조효과 상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우리의 원조의 언타이드화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봄.

- 이제 원조가 특정국가에 대한 단순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차원에서 수원국의 정부조달 체계의 개혁까지도 깊이 연관되어 수행되며, 개발 community 차원에서도 정부조달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성과물도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바, 향후 개발과 정부조달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수집 파악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정부조달관련 정책 집행 및 관련 협상에 유익할 것으로 사료됨.

Ⅲ. 주요 논의 내용

- 2006~8년간 향후 3년간 주요 사업계획으로 사무국은 아래와 같은 6개의 사업을 제시함.
 - 2005년 2월 합의된 원조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의 이행

사업 내용	timetable
중기 모니터링 작업	2005.12~2008.6
원조공여국 자체 리포트	2007.12
3차 고위급포럼대비 파리선언이행성과보고서	2008.6
평가작업과의 조율	2006~2008
DAC peer review와의 조율	2006~2008

- 3개 공동벤처(joint venture) 사업 수행(정부조달, 정부재정관리, 개발성과 관리)

- 지역 워크샵 개최를 통한 파리 선언의 홍보/전파
- 분석과 정책 권고

- 상기 사업을 2006~8년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데에 회원국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 우선순위화 및 예산 조달 측면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긴축적인 예산 운용의 필요성 등이 제기됨. 이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 합의는 금년 12월 중순까지 대표단간 이메일 교환 등 계속적인 비공식 차원의 논의를 통해 도출하기로 함.

- 특히 파리 선언의 홍보관련 지역적 차원의 워크샵 참여를 위한 비용 지원관련, 남아공 등 원조 수원국들은 자기들의 출장 비용조차도 “show me the money” 차원에서 원조 공여국이 비용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공여국들은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는 등 수원국과 공여국간의 입장 차이가 표명됨.

- Paris Declaration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남아공, 베트남, 캄보디아 등 22개 원조 수원국이 원조 공여국과 같이 회의에 동참하고 향후 Bureau(공동의장)의 일원으로 계속적으로 참여키로 하여 파리 선언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주요 이슈에 있어서 수원국과 공여국간 의견차이가 대두되어 향후 작업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좀더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 예산관련,

- 연구사업을 위한 인건비 등 총 1.6백만 유로가 소요
 - 핀란드, 이태리, 뉴질랜드, 미국, 일본(아시아 개도국의 회의 참여 비용으로 10만유로 제공), 스웨덴 등이 총 44만유로의 자발적 기여금을 제공키로 함.
 - 주요국들은 사업의 건축적인 재구성이 이루어질 경우 재공약하기로 함.
- ※ 사무국은 22개 개도국의 지역 세미나 및 OECD 회의 참가 비용인 41만 유로를 공여국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이에 대한 개도국과 공여국간 의견 대립을 노정함.

[자료:주오이시디 대표부]